

# 청소년, 청소년,



문숙희 · 이해영 · 정학재 · 조숙경 지음



★  
독후 활동  
노트  
★

# 소설과 대화하다



사피게절



## 차례

- 
- I 작품 들여다보고 공감하기 2
  - II 작품으로 자신과 세상 보기 12
  - III 친구나 부모님과 함께 읽기 22



# 작품들여다보고 공감하기

## 불량한 주스 가게



「불량한 주스 가게」의 주인공 건호는 어머니의 수술 사실을 알게 되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미처 건너지 못해 위태롭게 도로 중앙선 위에 멈춰 서 있게 됩니다. 아래 해당 장면을 다시 읽고, 이때 주인공의 심정과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상상을 글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횡단보도 신호등의 파란 불이 깜박이고 있었다. 중간도 못 가서 불이 바뀌었지만 나는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택시 한 대가 뱅뱅대며 나를 피해 갔다. 멈춰 뒤로 물러섰다. 중앙선 위에 꼼짝없이 서 있게 됐다. 전조등을 밝힌 차들이 모두 내게로 달려드는 것 같았다. (……) 줄지어 달려오는 불빛들을 눈이 아프도록 노려봤다.

\_23쪽

-----  
-----  
-----  
-----  
-----  
-----  
-----  
-----  
-----  
-----  
-----

# 열여덟 살, 그 겨울



「열여덟 살, 그 겨울」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기찬이는 승효네 빌라 옥상에서 있습니다. 묘하게 겹치는 이 두 장면에서 기찬이의 심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구체적으로 승효와 지영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승효에 대한 기찬이의 생각	지영이에 대한 기찬이의 생각
시작		
끝		

# 영두의 우연한 현실



「영두의 우연한 현실」에서 첫 번째 영두는 여러 우주를 돌아보려 합니다. 아래에 그려진 우주에서 영두가 만날 만한 이야기의 줄거리를 상상하여 만들어 봅시다. 이 우주에서도 또다른 영두를 만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여자와 함께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본 풍경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주택가가 아니었다. 맞은편에는 4층 높이의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근무 시간이 끝나서인지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이 꺼져 있었다. 영두는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정문 기둥에 걸려 있는 세로 간판을 읽었다.

조선노동당 서울시 지부.

역사의 선택이 사뭇 왼쪽으로 비켜난 우주인 듯했다.

\_133쪽

---



---



---



---



---



---



---



---



---



---



---

# 「뽐뽐」



「뽐뽐」의 아래 장면을 다시 읽고, 점순이와 주인공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장면에서 주인공이 점순이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적극적인 표현을 했다면 어떨을까요? 내가 주인공이라면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상상해서 이후 장면을 만들어 봅시다.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 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쯤 알거란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리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나 없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 하니까,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 하고 되일지계 쓰아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덩뎅히 바라보았다.

\_133쪽

-----  
-----  
-----  
-----  
-----  
-----  
-----  
-----  
-----  
-----

# 「사랑손님과 어머니」



작품 속 인물들의 감정을 생각하며 아래 아저씨가 밥값 봉투에 넣은 종이와 어머니가 손수건 속에 넣은 종이에 적었을 글의 내용을 짐작하여 적어 봅시다.

“그거 지나간 달 밥값이래.” 하고 말을 하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잠자다 깨나는 사람처럼 “응?” 하고 놀라더니, 또 금시에 백지장같이 새하얗던 얼굴이 발랄게 물들었습니다. (……) 어머니의 손을 바라다보니 거기에는 지전 몇 장 외에 네모로 접은 하얀 종이가 한 장 접혀있는 것이었습니다.

\_208~209쪽

“이 손수건, 저 사랑 아저씨 손수건인데, 이것 아저씨 갖다드리고 와, 응? 오래 있지 말고 손수건만 갖다드리고 이내 와, 응?”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수건을 들고 사랑으로 나가면서, 나는 접어진 손수건 속에 무슨 발각발각하는 종이가 들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미는, 그것을 펴보지 않고 그냥 갖다가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_215쪽

-----  
-----  
-----  
-----  
-----  
-----  
-----  
-----  
-----  
-----

# 「아빠, 아빠, 오, 불쌍한 우리아빠」



「아빠, 아빠, 오, 불쌍한 우리아빠」에는 주인공, 형, 아빠, 엄마가 등장합니다. 소설에 드러난 이들 가족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친밀하고 신뢰가 있는 관계는 '직선'으로 연결하고, 거리감이 있고 신뢰가 적은 관계는 '점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서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써 봅시다.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ten horizontal dashed lines.

# 「가식덩어리」



「가식덩어리」의 주인공은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할 때의 느낌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돌림 당할 때가 아니어도, 아래와 같이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느껴졌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그때 느낀 감정을 '마치( )처럼 느껴졌다.'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때 문득 어떤 느낌이 들었다. 내 안에서 줄곧 멈춰 있던 작은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듯한 느낌이. (.....)  
어제의 나는 무엇이든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놀랄 일도 화낼 일도 없다고 여겼다. '세상은 원래 안전하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시계 소리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이 와르르 쏟아지듯 내게로 덩벼드는 기분이었다. '시작'된 것이다.

\_298쪽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ten horizontal dashed lines.

# 「고향」



소설을 읽을 때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물의 이름과 그 뜻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의 '그'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래 도움글을 참조하여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소설을 이해하는데 있어 인물의 성격 파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물의 성격은 보편성, 전형성, 개성, 이 세 가지로 드러난다. 그러나 특정 상황이나 장면에서는 이 중 한 가지의 성격만 부각되기도 한다. 보편성이란 시대나 지역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일반적 성격을 말한다. 전형성이란 특정한 사회 집단 혹은 특정한 시대, 계층 유형의 표본이 될 만한 성격을 말한다. 개성은 그 사람만이 독특하게 내보이는 특수한 성격이다.

「고향」에 등장하는 '그'는 개성, 보편성, 전형성 가운데 무엇이 더욱 두드러집니까? 관련해서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  
-----  
-----  
-----  
-----  
-----  
-----  
-----  
-----  
-----

# 「우상의 눈물」

「우상의 눈물」에서 반장인 형우는 반 친구들에게 기표가 낙제를 면할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부정행위를 통해 도와주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시험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형우가 반에서 성적이 관찮은 몇몇 아이를 모았다.  
“두 사람을 조금씩 도와주자.”  
그가 제의했다.  
“이번 시험을 잘못 보면 또 낙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담임선생님이 말했다.”  
(……)  
“결국 부정행위를 하란 말이나?”  
“그렇다. 커닝이 교칙에 위반된다고 해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다.  
나는 다만 너희에게 부탁했을 뿐이다.”



\_ 354~355쪽

-----  
-----  
-----  
-----  
-----  
-----  
-----  
-----  
-----  
-----







## 「아빠, 아빠, 오, 불쌍한 우리아빠」

「아빠, 아빠, 오, 불쌍한 우리 아빠」에서 주인공에게 아버지는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설이 끝날 때까지 아버지의 성격은 변하지 않으며, 가족 관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말에 이르러 주인공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와 서로에 대한 태도를 예로 들면서 가족 간 또는 세대 간 갈등을 풀고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가식덩어리」



「가식덩어리」에서 주인공이 따돌림 대상이 되고부터 반 학생들이 주인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즉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갑자기 주인공의 모든 행동이 가식적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집단 따돌림처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살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낙인 때문에 '과연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래 글을 다시 보고서, 관련 있는 자신의 경험과 그때의 느낌을 얘기해 봅시다.

“도무지 모르겠어. (……) 내가 원래 어떤 애였는지도…… 까마득하기만 해.”

안나가 절망적인 얼굴로 말했다. 나는 말을 삼켰다.

‘나도 그래. 예전의 내가 아득하게만 여겨져. 지금 내 눈앞의 유리창이 내 모습을 비추지 못할 만큼 희부연 것처럼.’

\_198쪽

## 「고향」



「고향」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현실을 마주하는 지식인이 등장합니다. 염상섭의 「만세전」도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지식인이 등장해 식민지 현실을 마주합니다. 「만세전」에서 주인공 이인화는 일본 동경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에 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일제 식민 통치의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거리를 두고 다시 일본 동경으로 떠나 버립니다.

「고향」에서 '그'가 한·중·일 세 나라를 떠돌다가 고향이 파괴된 것을 보고 서울로 가는 결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세전」에서 주인공이 조선을 떠나 다시 일본으로 가는 결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작품의 결말 부분을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 「우상의 눈물」



「우상의 눈물」에서 반장 형우는 반 친구들 앞에서 기표의 어려운 집안 얘기를 낱낱이 밝힙니다. 해당 부분을 다시 읽어 보고, 아래 활동을 해 봅시다.

기표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는 정경이며 기표 어머니의 심장병, 그러한 부모들을 위해서 버스 안내원을 하던 기표 여동생의 눈물겨운 얘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기표네 식구들의 배고픔이 눈에 보이듯 열거되었다. (……)

“나는 얼마 전 기표가 버스 안내원을 하던 여동생을 뵈시 때린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몸이 약해 버스 안내원을 그만두었던 것인데 생활이 더 어렵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 나가기로 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동생이 앞으로 어떤 무서운 수렁에 떨어져 내릴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_373-374쪽

- ① 만약 우리 집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인데, 그 사실이 사람들 앞에 공개된다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봅시다.
- ② 진정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을 돕는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친구와



함께 읽기

부모님과



함께 읽기

▶ 친구와 함께 읽고 싶은 소설이 있다면, 함께 읽고 싶은 이유를 적어 보세요.

-----  
-----  
-----  
-----  
-----  
-----  
-----  
-----

▶ 함께 소설을 읽고 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내용을 적어 보세요.

-----  
-----  
-----  
-----  
-----  
-----  
-----  
-----

▶ 부모님과 함께 읽고 싶은 소설이 있다면, 함께 읽고 싶은 이유를 적어 보세요.

-----  
-----  
-----  
-----  
-----  
-----  
-----  
-----

▶ 함께 소설을 읽고 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내용을 적어 보세요.

-----  
-----  
-----  
-----  
-----  
-----  
-----  
-----

## 자기 소개



이름

---

연락처

---

학교

---

좋아하는 것

---

싫어하는 것

---

주로 사용하는 SNS

---

메모

---

# 청소년,



# 대화하다



시를 읽는 자유, 시를 아는 즐거움  
발랄한 대화로 풀어 보는 아름다운 우리 시 60편



시의 감동과 매력을 한껏 느끼고 즐길 수 있게끔, 활기찬 학생들과 친절한 선생님의 대화로 구성된 새로운 시 해설서. 시어의 느낌이나 감상, 질문거리 등을 서로 나누면서 시의 의미와 주제 등을 찾아간다. 이들의 즐거운 대화를 듣다 보면, 어느새 시의 매력에 빠지고 시를 깊게 읽는 힘도 기르게 된다. 행복하게 시를 즐기며 시 읽는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청소년, 시와 대화하다」 김규중 지음

-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인천서부교육청 추천도서 ★인디고서원 추천도서
- ★서귀포 시민의 책 선정도서 ★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청소년, 시와 대화하다」 독후 활동 노트  
2 | 518498 | 427004